

광주·전남 시도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최대 과제”

지역민이 원하는 공약은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지역 공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 불안과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에 대한 시도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치에 의뢰해 광주·전남 지역 유권자 1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7%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22.8%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대선공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어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 13.2%, ‘출산율 대책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13.1%,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8.2%, ‘광주 군 공항 이전 해결’ 7.9%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은 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 24.7%…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22.8%

AI도시 조성·출산율 대책·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순

광주에서는 ‘청년 일자리’(31.0%)와 ‘AI 도시 조성’(17.5%)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전남에서는 ‘국립의대 신설’(33.9%)과 ‘출산율 대책’(15.4%)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광주가 청년 중심 도시로, 전남이 고령화·의료 공백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대별 차이도 뚜렷했다. 20대(36.6%)와 30대(33.5%)는 청년 일자리를, 60대(29.2%)와 70세 이상(28.4%) 고령층은 국립의대 신설을 가장 시급한 공약 과제로 응답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의료 접근성과 지역 간 의료 격차에 대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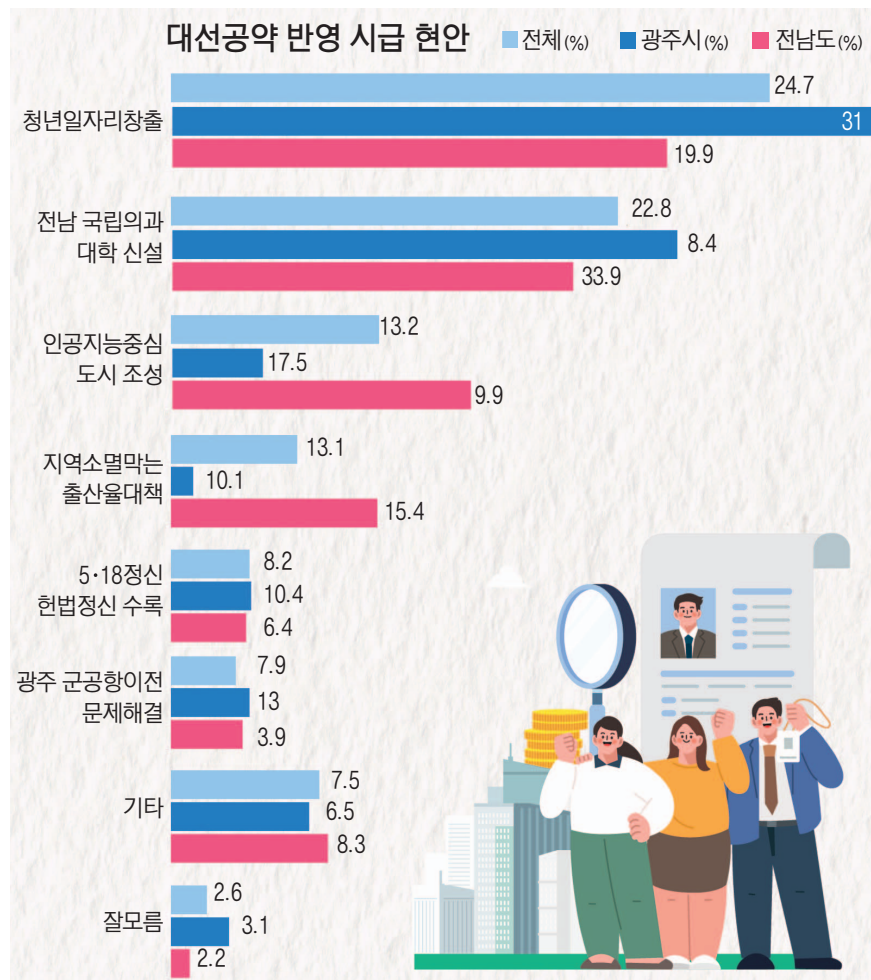
성별로는 여성의 27.9%가 청년 일자리를, 남성의 23.2%는 국립의대 신설을 가장 필요한 대선 공약으로 꼽았다.

남성은 ‘AI 도시 조성’이나 ‘군 공항 이전’ 같은 인프라 확장 과제에, 여성은 일자리·복지 등 실생활 밀착형 공약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22.7%가 청년 일자리, 24.3%가 의대 신설을 요구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은 청년 일자리 34.0%, 출산율 대책 16.5%로 응답이 집중됐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41.5%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이 단순한 구호나 상징성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와 전남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공약 설계와 실행 방안이 차기 정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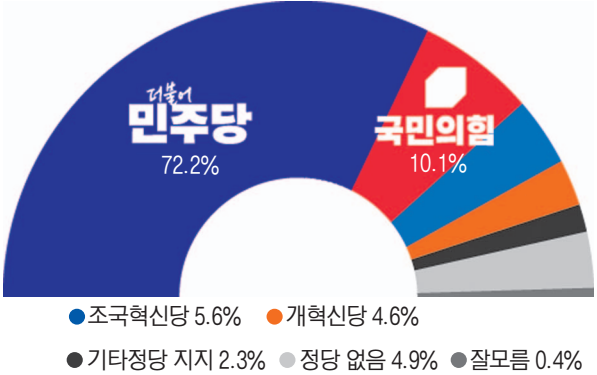


광주·전남 10명 중 7명 ‘민주당 지지’

국민의힘 10.1%·혁신당 5.6%·개혁신당 4.6%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율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광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치에 의뢰해 광주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66명(가중 1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2.2%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10.1%), 조국혁신당(5.6%), 개혁신당(4.6%), 기타 정당(2.3%), 지지 정당 없음(4.9%), 잘모름(0.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이 71.9%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힘 10.0%, 조국혁신당 6.8%, 개혁신당 4.8%, 기타 정당 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 없음이나 모름이 4.4%로 조사됐다.

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이 72.3%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힘 10.1%,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4.4%, 기타 정당 2.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 없음·모름은 6.0%이었다.

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70세 이상에서 80.1%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와 50대 78.8%, 60대 77.2%, 30대 58.6%, 18세 이상 20대 50.9%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18세 이상 20대에서 13.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3.6%), 60대(10.3%), 70세 이상(9.4%), 50대(8.1%), 40대(6.9%) 순이었다.

조국혁신당은 50대(7.2%), 18세 이상 20대(6.5%), 40대(6.2%), 30대(6.1%), 60대(4.6%), 70세 이상(3.4%) 순이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유권자 88.6% “현재 후보자 계속 지지”

후보 지지 가장 크게 영향 줄 요인…“공약·TV토론 결과”

후보자 계속 지지 여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10명 중 9명 정도가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후보자의 공약’이 가장 높게 나왔다.

광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8.6%가 ‘현재 투표하겠다는 후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응답자의 88.7%, 전남은 88.5%가 향후에도 해당 후보를 계속 지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계속 지지’ 응답자 중에서는 60대가 9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70세 이상 91.6%, 50대 90.2%, 40대 90.1%였다. 30대는 82.4%, 18세 이상 20대는 81.2%로 다소 낮았다.

반면 ‘지지 후보 교체 가능성’에서는 18세 이상 20대가 1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장년층일수록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지 않고 계속 지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9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문수 후보 89.2%, 이준석 후보 69.2%로 조사됐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진보의 경우 ‘계속 지지하겠다’가 92.2%로 강하게 나타났고,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7.4%로 가장 낮았다.

또 ‘대선 후보 지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5.8%가 ‘공약’이라고 답했다. 이어 TV 토론 16.2%, 후보 단일화 7.3%, 기타 16.4%, 잘 모름 4.2%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후보 공약을 가장 중시하는 비율이 60.3%로 나타났고, 전

남도는 이보다 낮은 52.4%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64.3%)와 40대(63.0%)가 ‘후보자의 공약’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고, 18세 이상 20대는 ‘후보자의 TV 토론 결과’(24.9%)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후보자 간 단일화가 대선 후보 지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70대 이상(14.3%)이 가장 높았다.

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후보자의 공약’(60.9%)이 후보 지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한 이들은 ‘TV 토론 결과’(42.7%)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광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치에 의뢰해 광주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66명(가중 1066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과 20일 무선 가상번호 100%로 실시됐다.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 값을 부여했으며(셀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응답률은 9.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어떻게 조사했나

광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2025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광주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응답률은 9.9%다.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무엇을 물었나

문1) 귀하께서는 6월3일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생각입니까. 투표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1. 투표하지 않겠다 2.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 3. 아마 투표할 것이다 4.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5. 잘모름

문2) 귀하께서는 6월3일 대통령선거에 다음 후보들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호명은 순환됩니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 국민의힘 김문수 3. 개혁신당 이준석 4. 기타후보 5. 지지후보 없음 6. 잘모름

문3) 귀하께서는 앞서 투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지후보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까?

1. 계속 지지할 것이다 2.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3. 잘모름

문4) 귀하께서는 앞으로 대선후보 지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요인은 다음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후보공약 2. TV토론 결과 3. 후보 단일화 4. 기타 5. 잘모름

문5) 귀하께서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역 불균형 2. 교통 문제 3. 부족한 교육 인프라 4. 청년 일자리 5. 부족한 농업 및 어업 종사자 지원 6. 기타 7. 잘모름

문6) 귀하께서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지역 현안 중 대선공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AI 중심도시 조성 2.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3.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4.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5. 청년 일자리 창출 6. 지역 소멸 막는 출산율 대책 7. 기타 8. 잘모름

문7) 귀하께서는 현재 다음정당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호명은 순환됩니다.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5. 기타정당 6. 지지정당 없음 7. 잘모름

문8) 마지막으로 귀하의 정치성향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보수 2.중도 3. 진보 4. 잘모름

창사를 축하합니다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회장 전민수 외 원우일동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의로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으로 지역사회 최상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

문 화

소 통

공 정

희 망

진 취

원우회장
전민수

상임고문
유명숙

고문
이재수

수석부회장
임중재

수석부회장
정광래

문화팀장위원
송현미

사무총장
조기욱

재무총장
박은화

1팀장
강성선

2팀장
이종만

3팀장
김경재
(글로벌총무팀장)